

뉴스 & 뉴스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준비

청담스님 문도회(회장 정철)는 7월 27일 청담 스님의 사상과 수행을 재조명하는 기념 행사를...

위안부 추모위령탑 제막

나눔의 집(원장 혜진)은 11일 오후 1시 '일본군 위안부 추모 위령탑 건립 제막식 및 추모행사'를 거행한다.

국토순례 대행진 회향



진각종 주최 제1회 청소년 국토순례대행진이 7월 27일 회향했다. 전국의 중 고등학교생 3백여명이 동참한 이번 국토순례대행진은...

14일 조계사 녹색장터

조계사(주지 지홍)가 생활용품 물물교환을 위한 '녹색장터'를 14일 경내 외국인안내소 옆 마당에서 열고 친환경 소비운동을 펼친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환경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열리는 '녹색장터'에서는 도서·의류·유아용품·신발·가방·주방용품·수공예품·잡화류·환경상품 등이 판매된다.

포교원 새건물 매입 곧 이전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이 최근 안국동 네거리에 접한 웅진갤러리 건물을 구입했다.

총무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89평 규모의 이 건물에 포교원과 중앙신도회, 불교신문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자원봉사선 용인 수해복구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7월27일 수해를 입은 경기 용인에 자원봉사자 70명을 파견, 수해복구작업을 벌였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용인 남사면 일원리 지역의 화취단지화 초등학교에서 일터에 잠긴 화초와 교실을 정비하고 수재민들의 빨래 및 가재도구 손질을 도왔다.



고령 대창양로원에서 안마·지압·침술봉사를 펼치는 대광맹인불자회 회원들. 어르신들의 기쁨에 힘든 줄도 모른다.

결성된 대광맹인불자회는 매년 전국 시각 장애인 산행대회를 개최하고 문화공연 등을 통한 모금 활동도 벌여 장애인 장학사업(매년 10명에게 250만원씩 지급), 경전 점자번역 및 녹음도서 제작 등을 통해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 왔다.

눈 멀었지만 마음은 '天眼'

대광맹인불자회, 어르신 안마-지압-침술 보살행 '화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미물들에게까지 보시하셨어요. 우리는 보지 못한 뿐 움직일 수는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7월22일 사할린에서 귀국해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경북 고령 대창양로원 어르신들

을 방문해 삼계탕과 떡, 과일을 대접하고 대한경락연구회 '한맥' 회원들과 함께 안마, 지압 및 침술봉사를 실시했다. 40명의 회원들은 대구연예인협회 회원들과 함께 문화공연, 풍물놀이도 펼치며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도 선사했다.

사지가 멀쩡한 일반인들이 하기에 벅찬 봉사행은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 대광맹인불자회가 대창양로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97년 8월, 이 때부터 매달 두 번씩 무료지

압 및 안마시술봉사를 실시하며 외로운 노인들의 좋은 벗이 되어 준 것이다. 대광맹인불자회 회원들은 수시로 철국 성가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난 4월에도 합천 원곡피해자복지회관에서 80명의 원곡피해노인들을 대상으로 위로잔치와 안마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153명의 회원들이 벌이는 이런 자비행은 안마 등 생업을 위해 밤에 일하는 회원들이 잠 잘 시간

과 일정을 맞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불평없이 그늘진 곳에서 보살행에 나서는 것은 남에게 받기보다는 베풀어야만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개선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행이란 생각 때문. 대광맹인불자회는 지난 5월부터 매주 월·화·수·금요일 정오에 실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도 실시하고 있다. 91년 6월 대구 보현사에서 20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주축이 돼



인사동이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거리 단장을 끝내고 이달 말 새 모습을 선보인다. 그러나 인사동의 새 모습에서도 불교문화를 만나기는 어려울듯 하다.

인사동 전통 거리로 새 단장, 그러나 불교가 없다

'전통과 문화의 거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仁寺洞)은 조선시대 때 대사동(大寺洞)과 탑사동(塔寺洞)으로 불렸다. 400여년 규모의 대가람이었던 원각사가 이곳에 있었고, 현재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의 석탑이 유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불교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사동이지만 이곳에서 불교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아니 불교 없는 인사동의 역사는 오히려 깊어간 것이다.

인사동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거리단장을 끝내고 이달 하순이면 새로운 모습을 시민에게 선보인다. 골동품과 고서화(古書畵), 전통다기에 화랑과 팔방이 백백이 줄을 선 이곳 '거리 민속 박물관'은 차도가 즐기고 인도가 그만큼 넓어지며, 9월이면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등이 거리를 수놓는다. 야외공연장과 분수대도 마련된다. 또 이곳을 세계적인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지구 지정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생생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전과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어렵다. 불교전통 문화원, 금동미륵불가상 등 불상 몇 구를 진열해 놓은 '동방공예'와 오래된 불상과 나한상 등을 전시해 놓은 '산촌 사람들', 그리고 염주를 판매하는 몇몇 상점들과 사찰전통음식점 '산촌'이 전부다. 21년째 이곳에서 '산촌'을 운영해 온 김연식씨는 "세월이 흐

를수록 불교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사동 문화보존회 김병욱 사무국장은 "눈으로 불교를 볼 수는 없지만 인사동의 정신은 불교에 있다"고 강조한다. 인근에 조계사가 있고 하루 평균 7만여명 방문하는 이곳 인사동의 새 모습에서도 불교의 생생한 체취를 느낄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하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14일은 우란분절 학술회의·방생등 사찰마다 행사

8월14일 불교 5대 명절 중의 하나인 우란분절(백중·음력 7월15일)을 맞아 교계에서는 경로잔치를 비롯 학술회의, 방생·천도법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부천 석왕사는 우란분절인 14일 정오 석왕사 야외무대에서 제13회 지역노인 초청 경로잔치를 벌인다. (032)663-7771 봉은사는 같은날 오후 7시 30분 법왕루에서(미정) 봉은사 합창단과 무용단, 풍물반이 참여하는 가운데 백중맞이 문화공연을 펼친다. 이에 앞서 오전10시30분에는 조상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다. (02)516-5652 불광사도 14일 오전 10시30

분 지난 6월27일부터 매주 월요일 지내 온 조상 및 수자영가 천도 49재를 회향하고, 효자·효부 시상식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한다. (02)413-6060 현성정사는 14일 백중기도 회향법회 및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다음날인 15일에는 해명양로원을 방문해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점심을 공양한다. (02)3216-5405 또 봉원사(02)392-3007와 도선사(02)993-3161도 백중맞이 합동영산재와 방생법회를 각각 봉행한다.

공주 계룡산 감사와 증도불교문인협회는 14일 오후 2시 감사 강당에서 '우란분절과 목련전승의 문화사적 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041)857-8981 이밖에도 용주사, 해인사, 동화사, 금산사, 은해사 등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49일 조상천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목사가 단군상·불상 파손" 한문화운동연합, 훼손 지휘 증거 공개

지난해부터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단군상 파손의 정본인이 개신교계의 현직 목사와 장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또 경북 칠곡의 석불을 자신들이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영천 만불사 아미타불을 철거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각급 학교에 단군상을 설치해 온 한문화운동연합(회장 장영주)은 7월2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단군상 훼손범 간증 비디오'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16일 경북 영천의 한 교회에서 열린 '단군상 철거 쟁기대회'의 녹취 비디오와 전문을 공개했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부터 모두 55기가 훼손됐으나 현장에서 검거된 2건을 제외하고는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날 공개된 녹취 전문에서 최

진각종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설립 문화관광부 인가

진각종은 청소년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대표이사 해명)'가 7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청소년 문화 창출과 포교활동에 나서게 됐다. 빠른 시일내에 정식으로 창립식을 가질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에 이르는 개별적 조직을 결속시켜 △청소년지도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설치와 관련,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정책연구원 대자연환경보존회 등 31개 환경단체가 참여한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공동대표 법륜스님 외 4명)는 7월2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대통령 직속의

Advertisement for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Wish Fulfillment Sacred Place Qi Room). Includes text about Qi, a photo of a pers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6kibang.co.kr.